

## 4. 인문사회계열 논술고사 문항 4

【문제】 (800~1,000자)

제시문 [가]에 나타난 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을 참조하여 [나]에서 놀부가 고립되는 양상과 원인을 해석하고,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이유를 [다]~[마]를 바탕으로 각각 논술하시오.

[가] 홀로 살아가는 청년 ‘고독생’ 문제가 심상치 않다. 은둔까진 아니어도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이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1인 가구는 970만 3,699가구로 전체의 41%에 달한다. 지난 7일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청년정책 DIY 프로젝트 ‘청년정책 공작소’엔 100여 명의 청년이 모여 ‘1인 가구’를 주제로 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 교수는 “외로움으로 세상을 등진 청년들의 숙소에서 취업 관련 서적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청년을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개성을 지닌 인격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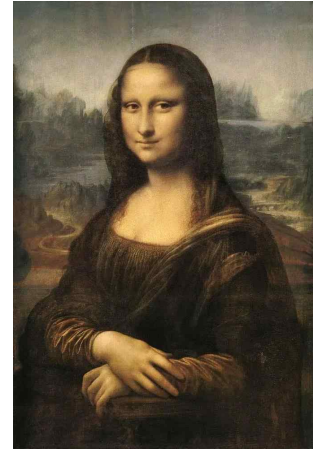
- 『중앙일보』, 2022. 10. 28. 재구성

[나] 몹시 주저하다 남의 종놈 모양으로 뜰 아래 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하듯 인사하며, “형님 나왔소.” 인사하니, 다정한 형 같으면 ‘내 동생 날이 추우니 어서 오르라’ 하련마는 박하게 대하는 말투가 주리를 할 놈이었다. 느릿한 목소리를 내어, “어이 왔노?” 흥보 옆드려 빌 때 두 손 합장하고 무릎 꿇고 지성으로 비는 말이, “형님 통촉하옵시오. 형님은 뉘시오며 흥보는 뉘오니까. 골육형제 나 아니오. 천륜지정 생각하여 동생 흥보 살려주오. 길을 두고 뵈로 갈까, 의탁할 길 없는 동생이 아니 불쌍하오. 어제 저녁 그저 있고 오늘 아침 못 먹었소. (…)” 백 가지로 빌 적에, 놀보 놈이 앉아 듣더니 두 주먹을 불끈 쥐어, 긴 창 작은 창 잠근 문을 휘어 당겨 탁 펼치며 눈을 딱 부릅뜨고, “이놈 흥보야 말 듣거라. 돈 한 돈이나 주자 한들 옥으로 장식한 장막을 친 방의 가죽나무 궤에 묶음을 지어 넣은 돈을 너 주려고 혈며, 한 되 쌀 주자 한들 큰 마루에 있는 큰 뒤주에 가득가득 담았으니 너를 주자고 창고 문 열며, 한 말 벼 주자 한들 천록방을 향해 높은 곡식 다물다물 쌓였으니 너 주려고 노적 혈며, 찬밥이나 주자 한들 새끼 낳은 암개 열두 칸 창고 문 앞 마당에 구석구석 누웠으니 너를 주고 개 굶기며, 싸라기나 주자 한들 영긴 닭이 오십 마리라 너를 이제 주면 병아리를 어이하며, 지게미나 주자 한들 굶은 방 우리 안에 돼지 떼 들었으니 너를 주고 돼지 굶기리. 열없는 놈 어서 가라. (…)”

- &lt;흥부전&gt;, 정충권, 『흥보전·흥보가·옹고집전』

[다] 「모나리자」에서는 신비로운 유려함을 통해 풍경과 인물이 하나가 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세상의 어떤 것이든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레오나르도의 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묘하게도 작품 속의 공간들은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 작품을 보는 이는 여인이 앉아 있는 의자를 쉽게 알아볼 수가 없다. 레오나르도는 르네상스의 화가들이 좋아했던 단선적 원근법을 버리고 그 자신이 ‘공기 중의 원근법’이라고 불렀던 독특한 투시법을 사용했다. 즉, 경계선을 흐릿하게 하고 밝은 색을 사용함으로써 작품 속의 공간이 뒤로 물러나는 듯한 환상이 들게끔 한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1503~1506)

-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라]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언어와 지식 등을 습득하고, 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 등을 내면화하면서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한다. 사회화는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사회화는 개인적 차원에서 언어와 지식, 기술, 행동 양식 등을 습득하고, 자아 정체성과 인성을 형성하게 한다. 한편, 사회적 차원에서는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 등을 학습하여 사회를 지속시키며 한 세대의 문화를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마] 로봇과의 사랑과 우정은 또 다른 커다란 위험의 전조다. 그 위험이란 우리가 사람과의 상호작용보다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선호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수줍음 많은 아이는 축구팀에 들지 않기로, 학교 연극 오디션을 보지 않기로, 생일 파티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다. 집에서 로봇과 있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로봇은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성가시게 굴거나 당신의 견해에 문제를 제기하는 현실 친구와 다르다. “설계자와 프로그래머는 상업적 요구 때문에 우리 기분이 좋아지게 반응하는 기기를 만든다. 이런 기기는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하거나 고통스러운 진실에 관해 숙고하도록 돕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인간과 로봇 관계 전문가인 예일대 교수 ○○○은 썼다. (···)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서로의 요구나 권리나 욕구를 존중하겠는가? 기계가 보살핌의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하고 돌보미의 역할을 자처하는 세계는 포용적 민주주의, 호혜성, 연민, 돌봄과 같은 토대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세계다.

- 노리나 허츠, 『고립의 시대』 재구성